

‘쌍둥이 스타’ 이재영·이다영 한팀서 뭉쳤다

여자배구 흥국생명 FA 계약
‘스피드 배구’로 시너지 효과
왕조 구축 토대 마련
2년만에 다시 통합 우승 노려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슈퍼 쌍둥이’ 이재영-이다영(24) 자매를 동시에 보유해 ‘왕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리그 최고의 레프트 이재영, 국가대표 세트 이다영과 계약한 흥국생명은 2년 만에 다시 통합 우승을 노린다. 외국인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부상 등 이변이 없다면 당분간 흥국생명의 적수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14일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마친 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영-이다영 동시 영입은 단순히 우수한 공격수와 세터를 데려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두 선수는 개인별 기량이 뛰어나지만, 쌍둥이 자매답게 배구 스타일이 비슷하다. 두 선수는 ‘스피드 배구’에 최적화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키 178cm의 단신 레프트 공격수인 이재영은 유연한 탄력과 탁월한 운동 신경이 장점이다.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고 빠른 타이밍의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효과적으로 따돌린다.

이다영의 플레이는 이런 이재영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이다영 역시 국가대표 세터를 지낸 어머니 김경희(54) 씨를 닮아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세터로는 큰 키(179cm)에도 빠른 발과 반 박자 빠른 토스로 상대 팀의 수비 타이밍을 혼돈한다. 두 선수의 호흡은 이미 대표팀에서 증명됐다.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지난 1월 대표팀에 차출돼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예선 우승에 앞장섰다. 당시 이다영은 대표팀 주전 세터로, 이다영은 김연경(타키역사사바시)의 뒤를 받치는 레프트 공격수로 맹활약했는데 매끄러운 호흡으로 대표팀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두 선수는 함께 뛰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다영은 대표팀 활동 당시 “(이)재영이와 호흡이 잘 맞아 토스를 올리기에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역시 “(이)다영이는 점프와 스피드가 좋은 선수”라며 “빠른 스피드로 토스해주면 공격이 세진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함께 뛰게 돼 더 편하게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재영은 “다영이와는 원래 잘 맞았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다영은 “재영이와 함께 흥국생명에서 뛰게 돼 영광이다. 더 빠른 플레이를 하겠다”며 “더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함께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이 자유계약선수(FA)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흥국생명에서 한술밥 먹는 이재영(왼쪽)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 /연합뉴스

광양시체육회장에 정시화 무투표로 4개월만에 선출

전국에서 유일하게 회장을 뽑지 못했던 광양시체육회가 4개월만에 회장을 선출했다.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시청 상 황실에서 체육회 임원과 선거관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초대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정시화(59)씨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10~11일 후보자 접수 결과 시경 레미콘 정시화 대표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투표 없이 당선됐다. 광양시체육회는 지난해 말부터 체육회장 후보자 공모에 나섰으나 나서는 이가 없어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 회장은 “초대 민선 광양시체육회장의 막중한 책임에 격정도 되지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광양시체육회 부회장과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해병대 팔각회와 광주지방경찰청 순천지원 범죄피해센터 등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바둑돌 대신 마우스

LG배기왕전 국내 선발전
사상 첫 인터넷 대국 개최

바둑계에서는 아주 생소한 풍경이다. ‘딱, 딱’ 울리던 돌 놓는 소리가 사라졌고 프로기사들 앞에는 바둑판 대신 노트북 컴퓨터가 놓였다. 14일 서울 한국기원 2층 예선바둑실에서 열린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은 국제대회 사상 최초로 인터넷 대국으로 예선전을 치렀다. 한국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국장에서는 ‘45cm×42cm’의 바둑판을 사이에 둔 두 선수가 승부처에서 머리가 닿을 것처럼 몰입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LG배 예선은 두 선수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떨어져 앉았다. 이날 심판을 맡은 서능욱 9단은 대국 시작에 앞서 “오늘 대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진행한다”라며 “마우스 조작 실수로 인한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고지했다. 서 심판은 또 “대국장 입장 전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비치해 놓은 손 소독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도 잊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에 대한 프로기사의 반응은 다양하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기사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마우스 작동이 서툰 시니어 기사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인터넷 바둑을 잘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창호 9단은 전날 열린 대국에서 김지영 2단에게 승리했지만 “익숙하지 않으니 조금 불편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한국기원 관계자가 전했다.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LG배 국내 선발전은 7장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231명이 경합을 벌인다. 앞서 일본은 6일부터, 중국은 11일부터 LG배 외국 예선을 역시 인터넷으로 시작했다. 한국기원은 이번 LG배 예선을 진행하면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대국이다 보니 입구에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대국자들이 혹시 모를 전자장비를 소지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LG배는 우승 상금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연기 촉발 IOC 위원 “베이징동계올림픽도 걱정해야”

도쿄올림픽 3~7조 손실 발생 추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42번째 현역으로 활동 중인 파운드(78-캐나다) 위원은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끼칠 영향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운드 위원은 14일(한국시간)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드게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에는 내년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달갑지 않은 모든 가능성을 IOC가 고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가 야기한 엄청난 추가 비용, 이로 파생된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재정 부담 등을 살펴 IOC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도쿄패럴림픽이 끝나고 불과 5개월 후인 2022년 2월 4일 개막한다. 통상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1년 반의 간격을 뒀지만, 이번엔 사실상 잇달아 열리는 만큼 IOC는 하나의 묶음으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인건비와 숙박 예약-경기장 대관료 등으로 3조원에서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비용 부담을 두고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힘을 겨루는 상태다. 올림픽이 예정대로 안 열린 바람에 IF의 재정 상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올림픽이 끝난 뒤 IOC가 주는 수익금 분배로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던 IF는 올림픽 연기로 난감해졌다. 운영난에 빠진 몇몇 IF는 IOC에 내년엔 나눠 줄 수익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IOC는

종목별 수익금과 분배 시점을 합구하고 있다. 파운드 위원은 “IOC가 IF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원 관계로 접어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IOC가 모든 복잡한 결과를 검토해 최선을 다해 IF를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 위원은 도쿄올림픽 추진 강행 기류가 득세하던 2월 말, 코로나19로 위협하다면 IOC와 도쿄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보다는 취소할 가능성이 크며 IOC 위원으로는 처음으로 ‘취소’를 언급해 올림픽 연기론에 불을 지폈다. 일본은 올림픽 취소를 강하게 거부했고,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각국 선수와 올림픽 위원회(NOC)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와 IOC는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3월 말 합의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생계 위협”

체육계, 정부 지원 호소

체육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는 14일 ‘체육인 호소문’을 통해 체육계 종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특히 민간 체육계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 운영 중단이 권고된 시설은 전국 2만 4000여 곳이며, 100여개 공공스포츠클럽 등도 휴장했다. 체육회와 단체들은 “휴장이 지속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체육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훈련장 대신 무등산 체력훈련 광주도시공사핸드볼팀 선수들이 최근 무등산 서석대에 올라 체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체육 시설 폐쇄로 훈련장이 부족해지자 무등산, 금당산 등을 오르며 체력을 다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제공>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른 더 도어
3관	라라랜드, 1917, 인비저블맨
4관	서치 아웃
5관	라라랜드, n번째 이별중
9관	오른 더 도어, 로건, 더 타닝
7관 씨네커플	서치 아웃, 데드풀, 라라걸 정직한 후보
8관 씨네커플	오른 더 도어, 원 데이, 기도의 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